

대학교육과 비판적 사고력 함양

李 君 賢

(韓國科學技術大 教授學部)

교육은 인간을 가치 있는 방향으로 이끄는 의도적이고도 계획성 있는 활동을 의미한다. 가치 있는 인간의 발달을 위해서는 옳은 것과 그른 것, 착한 것과 악한 것, 그리고 아름다운 것과 추한 것을 변별하는 가치판단 능력을 전제로 하는데 이러한 능력은 곧 비판적 사고에서 나오는 것이다. 교육의 역할이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데 있다면 우리의 교육은 이미 실패하고 있는 것이며 보다 근원적인 문제를 놓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왜' 배워야 하는가, 우리는 '왜' 사랑해야 하는가 라는 식의 물음을 제기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논리를 추구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주는 것이 보다 선행되어야 할 교육적 과제라고 여겨진다. 그러나 이러한 '왜'의 사고패턴은 하루아침에 습득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오랜 전통과 문화공간 속에서 교육적인 힘에 이끌려 체험적으로 형성될 수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 가령 동양의 사고유형을 일반적으로 직관적이라 한다면, 서양인들의 그것은 비판적(논리적) 사고유형이라 부를 수 있을 것이다. 동양인들이 권위주의적이고 순응적인 문화양식을 하나의 전통으로 간직해 오고 있다면 서양인들은 논리적이고 분석적인 생활양식을 그들의 전통 속에 뿌리내리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문화유형이 보여 주는 동·서양의 차이는 결코 단순한 사고양식의 차이가

아니라, 그들의 교육이 역사적으로 어떤 맥락 속에서 일관성을 유지해 왔는가를 여실히 보여 주는 하나의 핵심적인 단서가 되어 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문제는 교육 자체에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 단순한 교육관의 차이, 단순한 교육방법론의 차이에서 비롯된 사고훈련의 방법이 오랜 역사적 숨결 속에서 이렇게 엄청난 문화유형을 동·서양으로 갈라놓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것이 그들에 비하여 무가치하다거나 몰가치하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그러나 기능과 능력의 차원에서 순응적이고 직관적인 사고방식이 보편성과 창조성 면에서 논리적이고 비판적인 사고양식을 능가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엄격한 유교적 전통 속에서 살아온 우리의 처지에서 본다면, 이러한 문제의식은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한층 심각하고 뿌리 깊은 것으로 생각된다. 이 글을 읽고 있는 독자들 중에서도 가정에서, 학교에서, 혹은 사회의 어느 장소에서 '왜'에서 출발하는 논리적이고 비판적인 사고방식을 목살하거나 냉대하고 있는 모습을 아마 한번쯤 경험해 본 사람이 많을 것이다. 우리의 주변에서 이러한 사례는 아직도 비밀비재하다. 중학교 다니던 시절, 수학문제를 놓고 선생님께 꼬치꼬치 캐묻다가 교무실로 불려가는 낭

패를 당했을 때나, 친구 중의 한 사람이 직장에서 상사에게 어떤 일의 사유를 따지다가 그만 비롯 없는 부하로 아예 낙인 찍혀 승진의 기회를 놓쳤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는 이미 적절 한 실례를 하나씩 경험한 것이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우리의 현실에서 '왜'의 사고방식을 생활문화 속에 심는 작업은 아직까지 기존문화에 대한 회생적 도전을 의미하며, 여전히 '진방진 사람', '버릇 없는 학생', '킷곳은 부하'로 소의 되는 슬픔을 감당해야 하는 인내와 모험을 수반한다고 보여진다. 왜냐하면 '왜'에서 출발하는 비판적 사고력은 우리의 전통적 인습 속에 굳건하게 자리잡고 있는 권위주의적 실체에 대한 뒤엎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우리 교육의 실상, 즉 교육적 내실을 반추해 볼 필요와 책임이 있다. 우리의 현실이 정해진 범주 속에 안주하는, 그리하여 그러한 전통 속에서 편안함을 누리하고자 하는 나태한 인간보다는 편안하고 안이한 전통의 범주에서 과감히 이탈하여 새로운 세계, 미지의 삶을 개척하는 적극적인 사고의 인간을 꿈꾸어야 한다면 우리 교육도 더 이상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주저해서는 안 될 것이다. 물론 우리의 처지에서 교육이 담당해야 할 눈에 보이는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 것도 주지의 사실이다. 가령, 과밀학급을 해소하고, 학교의 경영방법을 개선하며, 교육 여건을 향상시켜 나가는 문제 등도 우리가 해결하여야 할 시급한 과제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보다 앞서 우리 교육이 개선해 나가야 할 근본적인 과제는 모든 생활공간 속에서 '왜'에 대한 비판적 사고력을 길러 주는 것이며, 나아가 그러한 도전적이며 건설적인 사고방식이 우리의 문화역량을 키워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분위기를 조성해 주는 것 또한 사회가 담당해야 할 임무라고 생각한다. 우리 교육이 처해 있는 현실적인 딜레마는 바로 교육의 문제를 효율성의 측정이나 경제적 고려, 또는 기술의 발전에 의존해서만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그릇된 신념으로, 이는 우리 교육이 안고 있는 근원적

인 문제에 대한 처방을 외면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진다. 교육개혁을 위하여 새로운 지식과 첨단 기술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지만, 그에 앞서 교육의 현장에서 사려 깊은 비판적 성찰을 싹트게 하는 사고의 훈련이 보다 차원 높은 개혁의 문제로 대두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앞선다.

학문은 경이(wonder)에서 시작된다는 말이 있다. 우리가 단나는 수많은 인식의 대상에 대하여 항상 '왜'라는 의문을 던져봄으로써 인류의 역사는 창조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본다. 개인의 비판적 사유가 영양실조에 걸려 메말라 버린 스테레오 타입의 순응적 교육풍토 속에서는 창조적 진보를 기대하기 어렵고, 그 대신 언제나 주어진 형식과 틀에 자극 없이 복잡해 버리는 이른바 매너리즘의 산물만 있을 뿐이다. 매너리즘이 팽배한 사회 구조 속에서는 개인의 이성적이고 자율적인 추론보다는 단조로운 집단 반응에 민감할 뿐, 기실 합리적이고 지혜로운 진보적 사고에는 무관심할 것이라는 논리는 자명하다. 비판적 사고와 판단의 힘은 그만큼 우리의 일상생활과도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으며, 특히 학문의 영역에 있어서는 하나의 출발점이 되어 준다는 점에서 매우 가치로운 것이다. 민주주의 사회가 사회주의 체제에 비하여 우월하게 느껴지는 것도 따지고 보면 비판적 사고가 존중된다는 점에서 그러하며, 이러한 비판적 사고야말로 인간의 존엄성을 그 바탕에 기본정신으로 깔고 있다는 점에서 우월성을 인정받고 있는 것이다. 국민 개개인이 비판적 사고력을 겸비할 때 그만큼 국민의 정신건강과 비전이 강화될 수 있는 것이며, 국제사회에서 강력한 경쟁력도 발휘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비판적 사고와 비방의 개념을 혼동해서는 곤란하다. 비방이란 말은 곧 어떤 사실에 대하여 논리적 근거나 건설적 대안 없이 그저 비방을 위한 비방으로서 개인적 편견이나 감정에 사로잡혀 상대를 헐뜯는 것을 말하는데 반해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비판이나 비평은 논

리의 전위를 따져서 발전적이고 건설적인 이해를 전제로 하는 일종의 지각 있는 분별력을 의미한다. 비판적 사고가 가능한 환경에서는 전통적 신념이나 기존의 법칙, 그리고 여러 가지 가치에 대하여 끊임없는 분석과 평가가 이루어지고 또 그것을 바탕으로 새로운 가치를 추구할 수 있는 발전적 기회가 마련되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이것이 결핍된 환경에서는 불합리한 편견과 오해가 정당한 판단과 논증을 흐리게 하여 결국 사건의 진실을 왜곡시키는 우를 범하게 된다. 우리 주변에서 아주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사회적 문제의 근원을 더듬어 올라가 보면, 종종 사회현상과 가치에 대하여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데에서 비롯되는 경우를 발견하게 된다. 우리는 비판적 사고 능력을 통하여 개화의 가치를 분석하게 되고, 무분별한 정치적 선전이나 혹은 허망한 과장이나 미화, 실증되지 않은 가설 등에 대하여 올바른 안목을 갖고 자기 자신과 이웃을 지킬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갖게 된다.

외국의 경우에는 비판적 사고력 함양을 위한 교육이 실제로 교육 현장에서 수시로 강조되고 있다. 가령, 미국의 고등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역사 과목의 예를 들어보자. 그들이 추구하는 역사교육 방법은 미국의 전체 역사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남북전쟁과 같은 구체적인 주제를 제기하고 그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깊이 있게 토론하고 논쟁을 벌이게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비판적 사고력과 논리성을 학습을 통하여 함양시켜 준다. 또한 프랑스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자. 프랑스의 학생들이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바칼로레아(Baccalauréat)라는 대학입학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하는데 이 시험의 방법이 주목된다. 대문 한 과목에 3~4 시간씩 주어지는 완전 논문식 시험이 치러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 중에서 철

학 과목에 출제된 문제를 소개해 보면 그들이 얼마나 비판적이고 논리적 사고력을 요구하고 있는가를 실감하게 된다. ‘타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의 입장에서 보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단정하는 것이 옳은가?’ 혹은 ‘자유는 독립과 같은 것인가?’ 등과 같은 문제들이 논술식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런 기회를 통하여 서구의 학생들은 그 동안에 받은 비판적 사고능력을 평가 받게 되는 것이다. 그들의 생활 구석구석 어느 곳이든 이러한 논리력과 분석력, 그리고 비판력을 중심으로 한 생활문화와 전통이 성립되어 있는 것도 결코 우연한 것이 아닌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비판적 사고력 함양을 위한 교육적 처방에 대하여 이제 우리는 이야기의 초점을 집중시켜야 할 차례이다. 비판적 사고력의 함양은 논술고사나 주관식 시험, 어느 특정의 과목만을 지도하는 방법, 또는 일시적인 시책에 의해 달성될 수 있는 성질의 문제가 아니다. 비판적 사고력은 어떤 문제를 심도 있게 종합적이며 조직적으로 분석하고 사고하는 데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초등학교에서부터 고등교육에 이르기까지 모든 교육방법이 비판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의도되어야 하며 가정과 사회에서도 그러한 분위기를 조장하고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제 우리도 암기 위주나 주입식 설명보다는 항상 ‘왜’라는 질문을 던지고 반성적으로 사고하는 습관을 길러 주며, 이러한 학습 분위기 속에서 논쟁하고 토론하고 시비를 가릴 수 있는 사고의 훈련이 교육의 가장 기본적인 패턴으로 정착될 때다. 그리하여 우리의 문화가 새로운 전통의 씨를 뿌리는 시대적 전환기를 맞이할 수 있도록 ‘왜’의 의미가 이 시대를 걱정하는 모든 이들의 열린 마음 속에 조그마한 충격으로 자리잡을 수 있었으면 한다. *